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9~7/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2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3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4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7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8	감산자전	담산덕청 대성	탐구사
9	스승과제자, 함께걷다	성재헌	(주)조계종출판사
10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진정한 힐링 얻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명당'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지음
불광 펴냄
1만 8천원

저자 30년간 답사한 명당 22곳 소개
고승들 깨달음 '靈地' 도 결정적 역할
"명당서 내려 놓아라…두려움 사라져"
106컷 사진과 22컷 전통 민화도 수록

풍수철학을 정립한 도선 국사를 비롯해 원효, 의상, 진각 대사가 와서 공부했다 하여 사성암이다.

30여 년 넘게 우리 산하를 누비면서 천문, 지리, 인사를 공부하고, 그에 관한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강호동양학자 조용헌. 그가 우리나라의 영지(靈地)와 명당 등 발품을 팔아가며 누빈 22곳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인걸(人傑)은 지령(큰 인물은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 곳에서 태어난다)' 이라는 말이 있듯 주변 풍경과 그 속에 사는 인간은 같이 돌아간다. 환경과 인간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퍅해지는 것은 어쩌면 콘크리트 건물이 사방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풍광 좋은 곳에서 쉬고 놀고 배우며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 후기 300년을 거의 집권했던 노론이다. 그들은 명산대천서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길러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산속 계곡에 구곡을 지어 놓고 시시때때로 찾아가 기운을 받고 인생의 시름을 달랬다. 천지자연과 하나 되는 인생관을 가진 그들이었다. 또한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음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 찾아든 곳도 대자연의 품이었다. 오랜 세월, 선인들이 힘을 키우고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휴식하고 시름을 달랬던 그곳은 어디일까. 그곳이야말로 오늘날,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명당(明堂)' 은 하늘과 땅, 바위와 물, 바람과 빛의 조화가 이뤄진 곳이다. 바위에서 기운이 품어져 나오고, 주변을 물이 감싸고 있어서 적당한 수분을 제공하고, 바람을 잘 감싸주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 곳들이 대개 영지이다. 그곳은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눈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신령하고 신비롭다. 이러한 땅의 기운, 지기(地氣)는 가는 곳마다 다르다. 묵직한 기운, 단단한 기운, 붕 뜨는 기운, 밝은 기운, 침침한 기운 등등. 나를 푸근하게 받아들이면서 생생한 에너지를 주는 땅이 있고, 어두운 기운이 밀려와 힘이 빠지면서 우울해지는 땅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영지는 공통적으로 밝고 강한 기운을 내뿜는 곳이다. 바로 '명당' 이다. 명당 하면 묏자리를 떠올리곤 하지만, 명당은 뜻 그대로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땅' 이다. 이런 곳에 몇 시간, 또는 며칠씩 머물면 몸이 건강해지고, 영성(靈性)이 개발된다. 기감이 발달된 사람은 10분만 있어도 이런 기운을 느낀다. 예민하게 못 느끼는 사람들도 영지에 머물면 서서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등산을 서너 시간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인간은 약 1만 년 전부터 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에겐 자연이 곧 신이었으므로,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제를 올렸다. 이 정보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토착신앙으로 다져진 영지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흡수돼 사찰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동시에 승려를 중심으로 명당에 대한 풍수철학이 체계화되었다. 풍수란 하늘과 땅, 사람의 유기체적인 회통이자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파악이고, 이 질서를 따름으로써 궁극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사찰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은 데에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 영지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풍수철학을 정립한 도선 국사를 비롯하여 원효, 의상, 진각 대사가 공부한 구례 사성암, 의상 대사가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던 관악산 연주암, 원효 대사가 수행한 여수 향일암,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 35년 간 머물렀던 대구 비슬산 대견사 등 웬만한 사찰에는 고승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와 기록은 그 터가 명당이자 영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같다. 이 책에서는 보증서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명당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서려 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의 울분을 달랜 강진 백련사, 백범 김구가 승려로 머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공주 마곡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학의 꿈을 발화시킨 고창 도솔암 마애불……등등. 그밖에도 대자유를 구하고자 한 고승들의 고독한 수행,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마음의 칼을 갈던 지식인들의 고뇌, 오로지 하늘을 향해 목숨을 빌 수밖에 없던 민초들의 간절한 기도가 명당에 전해진다. 수백 수천 년 전, 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구했던 염원과 기도를 헤아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에 닿게 된다. 선인들이 좇았던 마음의 행로를 더듬다 어느새 내 마음의 길도 뚜렷이 보게 된다. 예로부터 동양의 철학자들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를 추구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으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에 대한 답을 얻는다. 그때부터 인간은 외롭지 않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간사의 온갖 불행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풍파 없는 인생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말 못 할 고생과 파란만장을 겪는다. 이때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영지다.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대자연으로 가야 한다.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탄식을 멈추게 해주는 그곳으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시야를 갖기 위해서, 희망과 의욕,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영지 기행이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중년, 이때야말로 진지하게 몸과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저자는 이 시기에는 외부서 기운을 보충 받아야만 한다고 충고한다. '외부' 는 바로 대자연이다. 자연이야말로 최고의 원기 회복제라는 것이다.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그득한 그곳서 온몸을 누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대자연은 당신이 누구건, 어떤 사연을 가졌건 부드럽게 안아주며 토닥거려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설명한다.

'휴휴명당(休休明堂)' ,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명당이다. 누구도 주인일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명당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106컷의 사진도 함께 수록돼 있다. 영지의 신령한 기운을 담기 위해 어떤 사찰은 작가가 수차례 방문 했다. 또한 함께 수록된 그림은 우리나라 전통 민화이다. 이영수 前 단국대 미대교수의 소장품들이다. 대부분 100~200년 전 그림으로 추정된다. 자연서 쉬고 놀고 휴식하는 이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이 책이 주는 교훈이다.

"완벽하게 멈추면 깨달음이 온다"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 | 각산 스님 엮음
나무옆 의자 펴냄 | 1만 3천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 물리학도 출신으로 '푸른 눈의 성자' , '세계적인 명상 스승' 으로 불리는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명상에세이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가 출간되었다. 2008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후속 편으로 7년 만에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고승 아잔 차의 수제자이자 호주에 최초로 사찰을 세운 호주 불교 개척자인 저자는 세계적인 명상 거장으로 동양의 도를 서양으로 옮겨간 파란 눈의 불교성자로 불린다.

전편인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고승 아잔 차 밑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 108편이 실려 있다면, 이번 책에는 호주 퍼스서 불교를 전파하고 마음을 수행하면서 깨닫게 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분주한 마음' 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을 다스리는 108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원서는 〈DON'T WORRY BE GRUMPY〉로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한국 제자인 각산 스님이 인간의 '희로애락' 을 시작으로, '음미' '정진' '연민' '무아' '내려놓음' '지혜' 등을 얻는 과정을 일곱 가지 테마별 흐름으로 엮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원숭이 마음' 명상에서 '원숭이 마음' 이 뜻하는 의미는 원숭이가 숲 속에 살면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건너다니는 것처럼, 이 일에서 저 일로 한시도 쉬지 않고 건너 뛰어다니는 '분주한 마음' 을 일컫는 은유다. 고요히 멈춰야 하는 나쁜 마음이다. 인간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 있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원숭이 마음'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원숭이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 새로운 명상법을 제시한다. 서문서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원숭이는 항상 꼭지를 움켜쥐고 반대쪽 끝에서부터 껍질을 벗깁니다. 한번 원숭이처럼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세요. 그러면 원숭이의 방법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렇듯 명상을 하는 불교 승려들은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마음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삶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수도승 명상법으로 초대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가지 주제로 엮은 108개의 '마음' 이야기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에는 어둡거나 무거운 얘기보다는 쉽고 명쾌하면서도 재미있는 108가지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배를 잡고 웃다가도 콧등을 후끈거리게 할 정도로 감동적이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다. 지치고 힘들며 머릿속이 산만한 현대인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여가를 마련해 주는 달콤하고 새콤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의미를 가만 살펴보면 깨달음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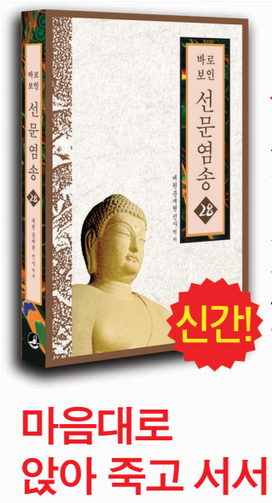
제 1장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나〉는 '희로애락' 의 이야기다.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왕이 있었다. 주치의는 상처의 위중을 묻는 왕에게 매번 무신경하게 대답하더니 급기야 손가락을 자르게 된다. 화가 난 왕은 직접 주치의를 감옥에 가둔다. 왕

7 주제로 엮은 108개의 '마음' 이야기
미워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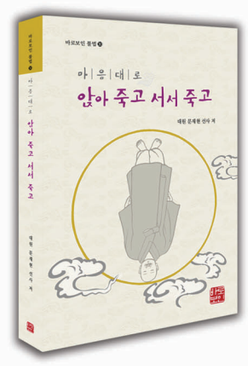
은 다시 사냥을 나가고 길을 잃어 토인에게 붙잡혀 제물로 쓰일 형편이었다가 잘린 손가락 때문에 살아난다. 이윽고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온 왕은 의사에게 사과하지만 의사는 만일 자신이 감방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왕 대신 자기가 토인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느냐' 고 반문한다. 또한 제 5장 〈여기 있는 사람, 가는 사람〉에서는 '무아' 를 주제로 삼고 있는 에피소드, 6장 〈놓아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는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내려놓음' 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결론 처럼 설명한다. "욕망 없이 완벽하게 멈춰 있으면 깨달음이 온다. 수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나무를 흔들거나' '막대기를 던지거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세상만사에 대한 일체의 욕망 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열어놓은 채로, 완벽하게 고요히 멈춰 있는 것을 터득하게 되면, 그런 때에만 깨달음의 망고가 우리의 손안에 사뿐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